

## 레슬리 마몬 실코의 『의식』에 나타난 서사와 혼종성\*

류 현 주

(부산외국어대학교 / 교수)

Ryu Hyun-Ju. Narrative and Hybridity in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2020): 55-71. This study analyses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to address its narrative and hybridity. Silko is one of the main writers leading the first renaissance of native American literature. She was born by a Laguna Pueblo mother and a white father. Her mixed-blood autobiographical background is reflected naturally in her works with hybridity through narrative elements such as themes, characters and general storytelling. The mixture of verse and prose style is her ancestry's(Indian) and universal oral storytelling tradition. *Ceremony* is a case in point: Tayo's story is featured with poetic forms of chants, songs, myth, folktales embedded in the author's prose accounts of his memories. Hybridity is the key element to keep stories and ceremonies strong through changes and transitions. Tayo, a half-breed main character, is cured by Betonie's ceremony contributing to his awakening and growth by realizing that hybridity is a source of power and strength like the spotted Mexican cattle with "light brown speckles" that he searched and found to achieve his uncle's vision successfull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Leslie Siko, Ceremony, Native American literature, narrative hybridity, oral tradition

### I

레슬리 마몬 실코(Leslie Marmon Silko, 1948~)는 미국 문학에서 원주민(Native Americans, American Indians, 이하 인디언)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알린 제 1 세대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케네스 링컨(Kenneth Lincoln)이 말한 인디언 문학 중흥(Native American Renaissance)기 작

---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가로서 그녀는 후세 인디언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Trout 389에서 재인용).

실코는 라구나 푸에블로(Laguna Pueblo) 인디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인디언 구역에서 살기도 했고 백인 사회에서 교육받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 두 문화 경험이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인디언 작가들은 부족 나름의 고유 언어가 있지만 영어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미국 문학계에 이름을 알리고 세계적 독자층을 확보해 나갔다.

작가는 인디언과 백인의 대립적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두 문화 모두를 수용하고 동시에 자신의 뿌리인 인디언 문화와 역사를 작품에 투영하였다. 미국 내 인디언 문제를 다루면서도 자연과 동,식물, 인간과의 상호 교감, 화합, 평화, 환경 보존 등 범 세계적 화두를 던지며 그녀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명성을 구축해 왔다. 2016년 그녀가 우리나라 <박경리 문학상>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은 이런 실코의 작품 세계와 작가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해 준다.

인디언 작가들 대부분 문학 창작의 출발점은 시였다(Wilson 1). 실코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의 작품은 먼저 시부터 발표되었고, 단편 소설을 통해 미국 문학계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실코가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장편 소설 『의식』(Ceremony, 1977)을 통해서였다. 이 작품 또한 원래 단편 소설로 구상되었다가 나중에 주인공과 소설의 흐름이 바뀌면서 장편 소설이 되었고 소설이 완성되기 전 실코는 다른 단편 소설을 동시에 쓰기도 했다(Preface xvi). 인디언 전통 스토리텔링으로 시와 단편 소설에 익숙해 있던 실코에게 장편 소설 구상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디언 작가들의 작품은 오랫동안—작품에 여러 번 나온 표현으로는 “태고적부터”(88, 93)—내려온 구전 이야기, 의식, 노래(Trout xv)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실코 작품 연구에서 이는 자주 다루어져 왔다. 그 중 이야기 내용과 인디언 공동체에서 이야기의 중요성, 구전 이야기 전통은 주로 시(김희성 2014)와 단편 소설에 집중되어 있었다(김지영 2009, 이우

학 2011). 소설집에 인디언 문화와 구전 이야기를 담았다는 내용적 특성 뿐 아니라 실코는 이야기 전달 방식에서도 실험적 시도를 하였다. 그녀는 시와 단편 소설, 그림까지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창작하였는데 이를 한 데 모은 것이 『이야기꾼』(Storyteller, 1979)이고, 제목에 잘 담겨 있듯이, 앞에 예를 든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작품집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사실 실코 작품의 특성은 『이야기꾼』 이전에 발표된 대표작 『의식』에 먼저 집약되어 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배경에 따른 혼종성(hybridity)의 주제가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이 주제를 실코 작품의 서사적 특성과 함께 연계하여 작품 캐릭터와 내용을 분석하며 다루려고 한다. 작가 실코와 같이 『의식』의 주인공 타요(Tayo) 역시 혼혈(half-breed, mixed-blood)이다. 이런 혼종성 문제는 작가 자신과 주인공의 출신 배경, 이로 인한 백인과 인디언 문화 공존 차원에서 먼저 부각된다. 그러나 혼종성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디언 문학에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혼종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이야기 내용은 물론 인디언 문화의 특징인 구전 전통 방식에서도 간파할 수 있다. 실코의 『의식』은 그 가능성을 잘 보여 주기에 본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미국 원주민에는 여러 부족이 존재하고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실코처럼 멕시코와 유럽 혈통도 있다(McMurtry, *Introduction* iii)<sup>1</sup>. 실제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혼혈이 많다. 나아가 사람의 혈통이나 삶과 문화의 혼합뿐 아니라 가축의 혼종 문제, 변화, 진화도 거론된다. 따라서 혼종성의 문제는 인디언과 백인에 초

---

<sup>1</sup> 참고한 작품 원서(*Ceremony*, 2016)는 래리 맥머트라이(Lary McMurtry)의 작가 및 작품 소개, 작가 자신의 서문, 본 소설 작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들 각각의 인용 출처는 *Introduction*, *Preface*, *Ceremony*로 구분하여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고, 이후 작품 본문(*Ceremony*)으로 부더의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할 것이다.

점을 맞춘 이론적 사유(하상복 2011)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종성을 작품 내용 뿐 아니라 이야기 서술 방식에도 확대해 볼 것이다.

## II

### 2.1. 서사의 혼종성

『의식』에 나타난 서사적 혼종성은 서사의 기본인 이야기의 본질적 성격과 이야기 작품의 구성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야기의 성격은 내용상 작품에 자세히 기술되고 실코는 서술 방식으로 운문과 산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먼저 문체의 혼종성을 살펴 본 후 내용상 강조되는 이야기의 특성으로서 혼종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각 부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야기 내용뿐 아니라 문자 기록 대신 입으로 전승되는 구전 이야기 전달 방식은 인디언 문학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가 오늘날 문학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문자 발명 이전에 사람들이 문해 능력이 있기 전부터 이야기를 향유하는 문화부터 출발했듯이 인간 문명의 보편적 특성이기에 문학 장르 구분 또한 없었다. 그래서 이야기 구술에는 기본적으로 산문과 운문이 결합되어 있다. 산문체는 민담, 전설, 신화가, 운문체는 일상 생활에서 즐기는 노래, 각종 제례 의식의 기도문과 주문(chant)이 있으며 이 둘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인디언 작가들의 이야기 속에는 같이 들어 있다. 여기에 전통적 이야기 진술은 연기까지 동반한 공연적 요소(performative elements)가 가미되어 있어 책을 읽는 독자는 누군가 곁에서 들려 주는 이야기를 듣는 청자로 바뀐다 (Ramirez 129).

이 공연 요소는 실코의 구연(口演) 방식에도 나타난다. 타요가 베토니(Betonie)의 의식을 통해 치유된다는 이야기 내용에서의 의식은 형식면에

서 작품 전체 전개 방식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서두, 중간, 말미가 의식 행사처럼 구성되어 있다. 의식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떤 존재를 소환하고 축문을 읽으며 기도로 마무리 되는 부분이다.

작품은 타요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 제일 먼저 이야기꾼 시 스시나코(Ts'its'tsinako, thought-woman 1)를 소환해 축문과도 같은 ‘의식’이란 제목의 시로 “이야기를 들려 주겠다”(1)로 이야기를 열며 이야기의 의의를 읊는다(2). 그리고 유일한 치유 방법은 의식이라며 “해야 떠라”(Sunrise)로 주문이 끝난다(3-4). 작품 중간에서는 의식을 치른 타요가 사고가 명징해지고 깨우침을 얻으면서 오랫동안 부족 사이에서 불러 왔던 새벽인(the Dawn People)의 “해돋이 노래”(the song for sunrise)를 부른다. 이 노래는 일출(Sunrise!)을 부르고 시작해 일출을 외치며 끝난다(169). 작품의 마지막 또한 일출에 고하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한 후 다시 일출을 외치는(244) 축문으로 끝나며 소설 『의식』과 서사 형식으로서 의식은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장편 소설로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산문체로 기술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위의 제문을 필두로 타요 이야기가 서술되는 곳곳에 구전 이야기와 노래 혹은 주문이 운문체로 담기고, 별자리 모양을 담은 그림(166)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운문체 글은 인용 부호 없이 줄 간격만두고 들어 있는데, 길이는 짧은 단시에서 몇 페이지에 걸친 장시까지 다양하다. 운문체로 서술되는 부분은 페이지 여백이 충분히 있음에도 다음 지면에서 시작하거나, 구전 이야기 내용일 때는 중간 중간 줄 간격을 넓혀 등장하기도 하고, 페이지 지면 분할(layout) 정 중앙에 위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일출 제문(祭文)을 살펴 보자. ‘의식’ 시에서 화자를 “그”로 한 페이지(2)에 이 시가 끝나고 다음 페이지의 대부분은 빈칸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유일한 치유는 의식이란 언급을 “그녀”가 말한다(3). 그 다음, 페이지를 달리하여 일출에게 고하는 축문이 나온 후, 다시 페이지를 달리하여 타요 이야기가 산문체로 서술되기 시작한다. 마

지막 제문에서도 악의적 마법(the witchery)의 소멸을 네 번 반복하여 외치며, 나머지 지면은 비워 두고(243)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일출을 두 번 외치는 것(244)으로 작품이 끝난다.

그 밖에 운문체로 삽입된 이야기로는 타요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장면에서 벌새, 거미, 파리, 곰, 산사자와 관련된 민담이 잠깐씩 등장하기도 하고 베토니가 들려 주는 옛 이야기와 후에 타요가 이를 회상하는 장면에 삽입된 구전 이야기는 5페이지를 넘는다. 베토니가 들려 주는 옛 이야기는 의식 거행 장면 묘사를 제외하면 거의 9페이지(122-134)가 넘고, 타요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장면은 상황 설명 없이 약 6페이지(157-63)에 달한다.

운문과 산문이 결합된 서술 방식은 전형적 인디언 이야기 구술 방식이자 작가 실코의 습관적 창작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창작 당시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면 실코가 의도적으로 인디언 이야기 방식으로 소설을 전개해 나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당시 1906년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정한 “인디언 문화재법”(the Antiques Act, 이하 이 법 인용은 Whitt 147 참조)이 실시되던 때였다. 이 법은 미국 영토에서 발견된 100년 이상된 인디언 문화재(Cultural Resources)들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와 소설이라는 구분 자체가 인디언 문화 밖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것이므로 이 작품 창작을 인디언 고유 방식으로 고수하는 것이야 말로 인디언 문화(재) 소유권이 인디언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코가 밝힌 창작관을 보면 이런 해석이 설득력 있다. “분노하고 소리치는 것보다 이야기를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나는 내 예술 작품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한 실코에게 창작은 문학적 성취뿐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기도 하다(재인용 Trout 389). 문화재법은 “인디언 고유의 문화 자산을 갈취”(theft of indigeneous cultural and genetic resources)하는 것(Whitt 150)이니 인디언들에 내재된 이야기 문화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소

설에서 타요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었던 특별한 여성 체(Ts'eh)가 그에게 “기억하는 한 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215)는 말과 맞닿아 있다.

혼종성은 이야기 본연의 속성이다. 이야기는 이 작품에서 인디언 문화의 축이자 타요의 일부로서 그가 보는 세계를 이룬다. 의식을 치른 후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인디언 문화를 실제 데리고 다니며 알려 주고 보여준 삼촌 조시(Josiah)의 뜻을 따르겠다고 깨달았을 때 그는 “뼈와 근육”(in bone and muscle, 210)에서 아저씨의 이야기가 드디어 형태를 완성해 나간다고 표현한다. 이야기는 곧 인디언의 일부인 것이다.

이 작품은 194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타요가 미군으로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6년 만에 돌아와 전쟁에서 사촌 형 록키(Rocky)와 삼촌을 잃고 참전 후유증과 이름 모를 구토와 복통으로 병원 생활을 한 후 인디언 주술사이자 의사인 베토니의 의식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인디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는 여정을 그렸다. 타요처럼 실코 역시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 작품을 써 나갔고 완성 후 이 창작물을 “제 정신으로 남아 있게 해 준 의식”(McMurtry, *Introduction* iii)이라고 소회하기도 했다. 타요와 실코의 치유 과정은 인디언의 뿌리, 즉 조상과 가족 및 다른 인디언들과의 유대감을 찾아 가는 과정이고 그 핵심에는 이야기가 있다.

『의식』과 이 작품 창작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내 사랑하는 조상과 내게 이야기를 들려 주신 어른신들(아무 할머니, 수지 이모, 그리고 행크 할아버지)이 나를 축복해 주고, 보살펴 주고, 그리고 보호해 준다고 느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와 들은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이 사랑하는 조상님이 축복해 주고, 살피 주고 그리고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Preface* xix)

실코를 비롯해 인디언이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문헌이 아니라 조상과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 주는(Silko 291)이야기를 통해서였다(Silko 291-94). 특히 실코의 할머니 릴리(Lily)는 땅 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실코의 집에서 자주 노인들을 모셔와 이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코는 이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땅의 소유자가 인디언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문헌이 없기에 이곳에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시 ‘의식’ (2)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고 질병과 죽음에 맞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마치 사람 배 속에 있는 생명체(life)처럼 움직이고 (moving) 성장하는(growing) 것으로 비유된다. 이야기는 정체되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면서 지속된다는 것으로 이는 혼종성이 이야기 본연의 특성임을 보여 준다. 이 시는 그대로 타요가 오래 전 태고 적부터 내려온 이야기로 가득찬 세상에서 사방을 둘러 보며 떠올린 할머니의 말-“항상 변하고(changing) 움직이며(moving) 살아 있는(alive) 세상”과 같다(88).

타요의 치유와 자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의식의 주재자 베토니 역시 변화를 통한 의식의 보전과 그 힘을 타요에게 강조한다.

한 때, 이전에 해 오던대로 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백인들이 오고 나서 이 세상 요소들이 바뀌기 시작했네.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지. 나는 계속 변화를 주면서 의식을 치러 왔다. 사람들은 아주 불신했지만, 이런 발전(growth)만이 의식을 더 강하게 지속시켜 주는 것이란다. (116)

베토니는 그의 할머니에게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116)이라는 가르침을 들었었다. 체 또한 “자연 만물은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것”(210)임을 타요에게 각인시켜 준다.



마침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안도감에 찬 타요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그가 경험하기도 했던 전쟁 이야기, 인디언 이야기가 모두 아귀가 서로 맞아 여전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즐기는 것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가 미처 몰랐던 세상 일들이 결국은 항상 “경계란 없고(no boundaries), 단지 과도기 이동(transition)”만이 있어 왔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229). 두 가지 성질의 것이 섞일 때 즉, 혼종의 개념은 경계가 무너지면서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것이 들어와 이전의 것과 합해지는 과도기 변화 과정에서 두 가지 성질이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되는 혼종성을 가리킨다. 치유의 의식은 바로 이런 혼종성의 의미와 의의를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타요에게 베토니가 행한 의식은 겉으로는 마치 반으로 가르듯 머리를 내리쳐 피 흘리게 한 것이나 이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타요가 겪은 이야기들을 들어 주는 긴 시간의 정신적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치유의 계기는 베토니의 의식이 마련했으나 그 치유의 핵심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 치료 측면 또한 있었다. 그래서 외상을 치료하는 백인 의사(white doctors)에 반해 인디언 부족에게 의사란 전통적 제의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주술사(medicine men)로 백인 의사의 역할까지 겸하는 것은 서로 대조가 된다. 또한 이는 술집이 밀집한 갤럽(Gallup)에서 관광객을 위한 쇼로 인디언이 진행하는 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의식으로 인한 치유와 깨달음의 순간에 타요는 하나의 무늬(the pattern)를 비로소 발견하는데(229), 그것은 베토니를 만났을 때 그가 그려준 별자리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밤하늘의 별만큼 강렬한 인상과 역할을 한 타요의 의식이 맞물리면서 유일하게 검은 바탕에 흰 색으로 그린 별자리 그림이 소설 작품에 들어 있다(166). 이는 실코의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에게도 강인한 인상을 남긴다. 상징성으로 볼 때도, 타요는 의식을 거친 후 비로소 삼촌의 소를 되찾겠다고 다짐하는데 특별히 그 계기를 만

든 것은 베토니가 말한 별자리를 직접 본 후였다(173). 또한 의식을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는 단지 빛 바랜 옛날 물건에 불과하다고 느꼈던 방패가 검은색 바탕에 하얀 점이 있는 그 무늬를 가지고 있음은 새삼스럽게 발견하고는 의미를 찾기도 하였다(199).

## 2.2. 혼성, 혼혈과 혼종

작품 내용에 혼종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등장인물, 언어, 가축, 의복, 종교 등등. 타요와 실코 태생이 대표적 혼종성의 예로 많이 다루어지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코가 이 작품에서 말하려 하는 혼종성 주제는 다른 사례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양상을 간단히 살펴 본 후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적 등장인물들과 가축(소)에 나타난 혼종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2.1. 서사의 혼종성에서 이미 혼종성은 순수성이 없는 부정적, 배타적 성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질이 함께 포함된 것이 강점이 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타요가 가족과 학교, 인디언 공동체에서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혼돈과 불신에서 벗어나 깨달은 것도 경계가 없다는 혼종성의 잇점이었다. 이것은 곧 작가 실코 자신의 깨달음과 결연한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세 혈통이 섞여 있는 실코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선상, 혹은 그 혼성성을 자신 창작 원천의 잇점으로 삼는다.

그 언어들 모두가, 그 생활 방식 모두가 합쳐져 있고, 우리는 그 세 가지 가장자리 어디엔가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미안해 하지는 않는다. 백인에게도,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출신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내 시, 내 스토리텔링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Silko, 291)

타요에게 걱정에 찬 할머니가 소개한 첫 의식 주재자 쿠슈(Ku'oosh, 31) 노인은 잡초와 먼지 가득한 가방을 가져와 타요가 이해하기 힘든 옛날 라구나 사투리로 의식을 치른다. 타요는 노인이 자신의 것이라곤 하나도 없이 이전에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복만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학교에서 그러지 않아도 인디언 전통은 미신이라고 가르친 교육 때문에 인디언 의식을 불신하고 있었던 타요는 이 주술사가 의식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치르고 있는가라고 불신한다. 관광객을 위해 의식을 보여 주는 주술사는 옛 토착어를 쓰는 '순수' 라구나 주술사 쿠슈였다. 이에 비해 베토니는 라구나가 아닌 나바호(Navajo)족이다. 타요는 그의 언어를 알아듣고, 베토니는 타요와 영어로 대화하기도 한다. 타요처럼 혼혈인 베토니는 타요와 긴 시간 이야기로 마음을 나누며 의식을 치르렀고 이야기를 통해 타요를 성공적으로 치유하였다.

미국 문학에서 인종 문제는 흑인, 백인, 유색인종의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졌다.<sup>2</sup> 미 합중국이 생기기 전,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기 전, 이 땅에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아온 원주민 즉, 인디언에서 문학이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인디언 문학은 미국의 최초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Trout 15). 그렇다면 미국 문학에서 인종 문제의 출발점은 인디언과 백인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디언에도 여러 부족이 있고 실코처럼 같은 인디언들 안에도 여러 혈통이 섞인 혼혈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고려할 때 혼혈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오늘날 미국이 탄생하기 전 이미 유럽,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 이 영토를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작품에 나오는 풋말들에 영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구나 부족은 케레산(Keresan)어를 사용하지만 스페인 점령으로 300년간 스페인

<sup>2</sup> 현대 미국 사회의 복잡 다단한 인종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으로 데이빗 매릿의 『인종』을 예로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염정민이 논문 전체에 걸쳐 구체적으로 예시와 설명을 하고 있고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특정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다.

어가 주 언어이기도 했다(Trout 292). 타요가 술친구들과 어울리는 갠립 지역에는 백인과 인디언, 멕시코인은 물론 흑인도 있었다.

인디언 사회에서 혼혈이 불명예이자 수치로 여겨지는 것은 백인 혈통이 섞여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혈통(full bloods)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모 안티(Auntie)는 동생이 백인과의 사이에서 난 타요의 존재를 부끄러워 하고 미국 백인들의 삶과 성공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자신의 아들 록키는 자랑으로 여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디언 생활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변화는 일어났다. 인디언이라고해서 모두 담요를 몸에 덮고 모카신을 신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백인 문화의 표상인 청바지(Levis)는 남자 인디언의 전형적 복장이 되어 작업복으로도, 일상복으로 입는다. 타요의 친구 핑키(Pinkie)는 선글라스에 카우보이 모자를 즐기면서도 인디언 옷 입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군복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 입어야 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버티다 군 영창에서 1년을 보내기도 했다(201). 핑키를 포함해 타요의 참전 인디언 친구들은 술집에서 미국 맥주(Coors)를 마시며 주크박스로 미국 팝송을 듣는다. 그럼에도 타요가 어울리는 술친구들은 역시 혼혈 인디언을 비하한다. 그래서 타요는 에모(Emo)와 칼부림 싸움까지 했고, 타요 대신 역시 같은 혼혈 인디언 할리(Harley)는 친구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인디언 보호 구역에는 인디언 전통 의식과 제례, 민간 요법과 미국의 기독교, 스페인 전통의 천주교가 함께 존재한다. 같은 인디언도 믿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에서 실코가 말한 아무 할머니는 사실 증조 할머니이다. 할머니와 실코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이야기는 이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으며 인디언 문화와 실정에 대해 눈을 뜨고 정체성을 심어 주는 중요 역할을 했다. 실코는 증조 할머니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기는 해도 할머니의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고 라구나 인디언의 믿음을 가지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Silko 292). 증조 할머니의 이름 “아무”(A'mooh)는 주술사 쿠슈가 의식을 치를 때(239) 외쳤듯이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인디언 축문의 외침 “A'moo'oooh”을 닮아 인디언 영혼의 화신과도 같다. 타요 할머니가 아픈 타요를 무릎에 놓고 울때도 “아무”를 부르짖었고 천주교 신부도 매년 암사슴(she-elk) 의식을 치를 때 이를 외치고 시작한다(214). 이처럼 인디언 색채가 짙은 이름을 가졌지만 증조 할머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또한 작품에서 타요 이모 수지는 인디언 순수 혈통을 고수하지만 천주교를 믿고 아들도 세례를 받았다.

타요는 다른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러나 의식을 치르기 전 타요는 어떻게 혼혈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가지고 있었다. 참전 후 돌아와 병상에 있는 동안 타요는 남에게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상상해 내는 미친 인디언(225)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왔고 또 그것을 차라리 믿고 싶어했다. 그러나 의식을 치른 후 치유가 된 타요의 깨달음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고 전에도 미친 적이 없었으며”(229) 앞에서 말한 경계 없이 다만 과도기 이동만 있는 세상을 바로 보게 된다.

그의 상처를 어루 만져 준 사람들은 베토니와 체처럼 순수 라구나 인디언이 아닌 혼혈이었다. 타요에게 정신적 안식처가 된 체는 몬타노(Montaño) 족이며 그녀의 언니는 나바호족과 결혼했다. 베토니에게 가르침을 준 그의 할머니 역시 멕시코인이었다. 그럼에도, 멕시코 여성에 대한 인디언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타요 삼촌 조시는 멕시코 여성을 사귀지만 “추잡한 멕시코 여자”(70)로 모는 타요 이모 때문에 비밀리에 그녀를 만난다. “멕시코인 눈”을 가졌다고 조롱받는 조시 여자 친구의 연갈색 피부(light brown skin)와 눈(hazel brown eyes)에서 타요는 동질감을 느낀다. 그녀는 혼혈인에 대한 사람들의 미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해석한다(92). 사람들(인디언, 백인, 멕시코인)은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겁먹은 그들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비난해야 자신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가 일깨워 준 다름과 변화란 혼종성의 실체는 베토니와 체, 타요 할머니의

지혜와 같은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그녀 말의 핵심은 의식을 치른 후 타요가 깨달은 혼종성의 긍정적 힘이다.

벤토니, 제와 함께 그의 치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이 멕시코 여성이다. 그녀는 혼성성의 지혜를 알려 준 것과 동시에 타요 삼촌이 전사한 후에도 조시의 소들을 잘 보살피고 있었다. 타요가 흠어진 소를 찾아 조시의 뜻을 이어 나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치유된 타요가 인디언 정신을 행동으로 계승해 나가려 함을 보여 준다. 대학 졸업을 앞 둔 타요는 록키와 함께 조시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으나 전쟁에서 두 사람을 잃는다. 병상에서 혼돈의 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치른 후 다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럿 넘기고 숨어 다니며 몇 일 동안 조시의 소들을 되찾는데 혼혈을 기울인다.

삼촌은 소를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멕시코 여성에게서 우리 바리(Ulibarri) 소를 구입했다. 타요의 이모가 삼촌이 만나는 멕시코 여성을 비하했던 이유에는 그녀에게서 삼촌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모는 멕시코종 소마저도 부정한 것이다. 타요가 이 소들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벤토니의 의식을 치른 후였다.

타요는 조시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다니며 소에 대해 배웠었다(68). 얼굴이 하얀 순종 해리포드(Herford)는 가뭄을 견뎌 내지 못하는 약한 소이다. 이에 비해 혼종(hybrid cattle)인 멕시코 소는 야생이어서 물과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며 가뭄을 이겨 내는 강한 종이다. 상아색 바탕에 갈색 얼룩이 있는 이들 “점박이 소”(the spotted cattle, 173, 174, 182, the speckled cattle, 74, 134, 155)에는 멕시코 산이란 낙인이 찍혀있다. 이들 종에는 오래 전 사막 소의 피가 섞여 있어 그렇다. 우리바리 소는 멕시코종과 같이 긴 겨울 건기를 이겨내는 강한 소였던 것이다.

백인에게 소는 투우를 즐기는 오락이자 재미의 대상이다(198). 백인은 목장에 울타리를 쳐 소를 가두지만 삼촌에게 타요가 배운 것은 소가 그 울타리 안에 갇혀져만 지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타요가 의식을 치른 후 백인의 목장 울타리를 끊어 놓고 다니는 일은 그 사명감을 지키려 노력한 것이다.

의식을 통해, 또 그 결과 혼종성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타요는 원기를 회복한다. 그의 치유는 곧 세상과의 화해이기도 하다. 인디언 문화와 의식에 불신이 많았던 타요는 베토니에게 의식을 치른 후 다시 쿠슈와 노인들을 찾아가 베토니의 의식과 체와의 의미있는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디언 이야기 문화를 계승한다.

또한 그의 치유는 악의적 마법(the witchery)에 걸려 그 동안 파괴되었던 세상이 드디어 깨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 여행을 기점으로 실제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고 만물이 생기를 찾는다. 백인과 인디언, 순수와 혼혈을 넘어 이들의 대립과 반목은 결국 악의적 마법이 지배한 결과이다. 계속 서로를 비난하는 대립 관계가 지속되면 이 마법에 굴복하는 것이다. 작품 마지막 제문에 “이 마법은 이제 죽었다”가 여러 번 반복되고(243) 그 다음 페이지에 해돋이를 외치며 사방의 힘을 불러 모으는 것은 타요와 세상의 치유를 상징한다.

### III

지금까지 『의식』에 나타난 주제 혼종성을 서사성, 등장 인물과 가축 소를 통해 살펴 보았다. 작품 구성과 형식에 나타난 서사의 혼종성은 운문체와 산문체를 결합한 서술 방식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소설이란 문학 장르에서 혼합체 인디언 스토리텔링 방식을 고수하며 실코가 인디언 문화를 보전하려 노력하였다.

작품 내용의 혼종성으로는 타요가 같은 혼혈인 베토니의 의식을 통해 치유받고 또 다른 혼혈 여성 체에게서 정신적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힘을 얻어 타요는 멕시코 여성에게 삼촌이 구입한 점박이 소를 되찾으며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인디언의 얼을 되살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사 방식과 내용에 나타난 혼종성은 원래 간직한 순수 요소에 다른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변화와 힘의 원천이 되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었다.

이번 연구는 제한된 지면에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들과 다른 방향으로 혼종성을 전개하면서 모두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서사 혼종성에서는 대표적 예들을 통해 운문체와 산문체 혼용 형식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작품 내용과 운문체와 산문체의 연관성을 다 짚어 보지는 못했다. 물론 타요가 의식을 받기 전 사용된 혼용 방식은 일관되게 맥락을 찾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었다. 독자 입장에서 마치 그의 흥미한 정신과도 같이 갑작스럽게 앞뒤 내용과 연관성 없이 옛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했고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앞의 이야기가 반복될 때는 나중이 되어서야 그 상관 관계를 찾기도 했었다. 뒤죽박죽 타요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장편 소설이란 긴 호흡의 창작을 처음 시도한 실코가 이전 익숙한 방법대로 시와 단편 소설을 써 나가다 생각나는대로 옛 이야기를 삽입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는 추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코 연구물과 그녀의 다른 장편 소설을 살펴 봄으로써 실코의 서사에서 운문체와 산문체의 혼합 방식과 전개되는 앞뒤 내용 맥락과의 연관성을 더 심도있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인 용 문 헌

- Ha, Sang-Bok. "The Possibility of Critical Hybridity in Leslie Silko's *Ceremony*." *Saehan English Literature* 53.2 (2011): 135-58.  
 [하상복. 「비판적 혼종성의 가능성과 실코의 『의식』. 『새한영어영문학』 53.2 (2011): 135-58.]
- Kim, Ji-Young. "The Collective Power of Story in Silko's "Storyteller"."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5.2 (2009): 293-314.  
 [김지영. 「실코의 "이야기꾼"에 나타난 이야기의 집단적 힘. 『영어영문학』



55.2 (2009): 293-314.]

- Kim, Hee Sung. "Silko's Fluid Self within Native American Oral Tradition." *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20.1 (2014): 39-64.  
[김희성. 「미국 원주민 구전 전통을 통한 실코의 유동적 자아쓰기」. 『현대영미시연구』 20.1 (2014): 39-64.]
- Lee, Woo Hak. "The Roles of Storytellers in Leslie Marmon Silko's *Storyteller*." *Folktale and Translation* 22 (2011): 221-38.  
[이우학. 「레슬리 마몬 실코의 『이야기꾼』: 이야기꾼의 역할」. 『동화와 번역』 22 (2011): 221-38.]
- Ramirez, Brill de.& Susan Berry. *Contemporary American Indian Literature and the Oral Tradition*. Tuscon: U of Arizona P 1999.
- Silko, Leslie Marmon. *Ceremony*. New York: Penguin Books, 2016.
- \_\_\_\_\_. "I Still Trust the Land." *Native American Literature*. Chicago: National Textbook Company, 1999. 291-96.
- Trout, Lawana. *Native American Literature*. Chicago: National Textbook Company, 1999.
- Whitt, Laurie Anne. "Cultural Imperialism and the Marketing of Native American." *Natives and Academics*. Ed. Devon Mihesuah.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1998. 139-71.
- Wilson, Norma C. *The Nature of Native American Poetry*. Albuquerque: U of New Mexico P, 2001.
- Yum, Jeong-Min. "'No One Wins': David Mamet's Race from the Viewpoint of Post-racialism."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7 (2017): 201-23.  
[염정민. 「'승자는 없다': 탈-인종주의 관점으로 본 데이빗 매밋의 『인종』」. 『신영어영문학』 67.2 (2017): 201-23.]

ju ru 2k@bu fs.ac.kr

논문접수일: 2020. 4. 13 / 수정완료일: 2020. 8. 19 / 게재확정일: 2020. 8. 25

